

‘전국노래자랑’ 36년·‘가요무대’ 31년·‘신비한 TV’ 14년...

오래도록 사랑받는 ‘장수 예능’ 비결은

“솔직히 장수 비결을 물으시면 뽀족한 답은 없어요. 그저 시청자가 꾸준히 사랑해주신 덕분인거죠. 어떤 프로그램인들 전라를 안 세울까요. 하지만 계획대로, 예상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살아남을 때마다 감사한 거고 계속 죽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뿐이죠.”

지난 31일 방송 700회를 맞은 MBC TV 미스터리 예능 프로그램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김진호 PD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예능 프로그램 장수 비결은 사실 머니도 모른다니 말이 맞다. 절정의 인기를 누리다가도 풍선에서 바람 빠져나가듯 시청률이 하락하다가 하루아침에 폐지 통보를 받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지상파 3사에서 살아남은 장수 예능의 면면과 명암을 살펴봤다.

◇ 시청률·광고·좋아아·공영성·한류 목적으로 생존도 = 대표적인 장수 예능 프로그램으로는 KBS 1TV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가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은 광고가 붙지 않는 1TV에서 방송되기 때문에 시청률이 유일한 평가 지표인데, 타깃층이 50대 이상이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프로그램이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청률이 유지되고 있다.

일요일 낮 12시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전국노래자랑’은 1980년 11월9일 시작해 올해로 방송 36년째를 맞는다. 지난 24일 시청률이 15.6%로, 동시간대 경쟁 프로보다 2배 이상 높은 성적이다.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가요무대’는 1985년 11월18일 첫 방송을 했으니 방송 31년째다. 지난 25일 시청률이 13.9%로, 3사 월화극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다.

1993년 5월9일 시작한 ‘열린음악회’도 KBS 1TV 또다른 장수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 24일 시청률이 4.5%. 하지만 찾아오는 공영 프로그램으로서 KBS의 공영성을 상징해 23년째 생존해 있다.

MBC TV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는 2002년 4월7일 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14년째 일요일 오전 10시대 시청률 1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광고도 완판을 이어왔다.

SBS TV ‘자기가-백년손님’은 지난 2009년 6월19일 ‘스타 부부쇼 자기야’로 시작해 작년 10월 방송 300회를 맞았다. 이 프로그램은 목요일 밤 11시대 시청률 1위를 이어가고 있다.

‘무한도전’은 2005년 4월23일 ‘강력추천 토요일’ 속 코너 ‘무모한 도전’으로 출발해 ‘무리한 도전’, ‘무한도전-퀴즈의 달인’을 거쳐, 2006년 5월6일부터 단독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광고 시장이 얼어붙어도, 시청률 부침이 있어도 광고 완판 행



700회 맞은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출연자들

진을 이어가는 한국 방송예능계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다.

◇ 찬란한 전성기 찍어도 폐지될 때는 초라하게 퇴장 = 드라마는 인기를 얻을 경우 대개 절정의 지점에서 박수 받으며 종영한다. 그러나 예능 프로그램은 ‘단물이 다 빠진 후’에 초라하게 퇴장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에는 ‘힐링캠프’를 비롯해 작년 11월6일 폐지된 MBC TV ‘세바퀴’가 그러하다.

‘세바퀴’는 2009년 4월4일 시작한 이래 금요일 밤 최고의 입담을 뽐내며 인기를 누렸지만, 시청률이 한번 집을 나간 후에는 좀처럼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MC를 여러차례 바꾸고, 포맷도 변경을 해봤지만 심폐소생에 실패하면서 결국 7년 역사를 뒤로 해야했다.

‘스타킹’은 기사화생했다. 시청률 하락 끝에 작년 8월 방송이 중단돼 폐지되는가 했더니 석달여 만에 재단장해서 돌아왔다. 돌아오면서는 토요일에서 화요일로 편성이 옮겨지며 ‘주말 프로그램’의 지위를 상실했다.

◇ “예능프로 시즌제로 제작해 생산성 높여야” = 방송가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의 시즌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즌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BS에서 ‘1박2일’로 히트를 친 뒤 이직해 tvN에서 ‘꽃보다 할배’, ‘꽃보다 청춘’, ‘삼시세끼’ 등을 통해 예능 시즌제를 정착시킨 나영석 PD는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한국 예능은 ‘물 빠질 때까지’ 하다가 망해야 비로소 끝난다. 무조건 방송을 이어가는 건 근사한적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능은 아무리 영감스러운 시절이 있었어도 방송이 끝나면, 망한 프로그램의 PD가 된다.”며 “또 한 프로그램만 계속 찍다 보면 매년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사흘만에 100만 관객 돌파 ‘쿵푸팬터3’ 흥행 돌풍

1천만 ‘겨울 왕국’ 보다 빠른 기록

애니메이션 ‘쿵푸팬터3’가 개봉 사흘째인 30일 관객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이 영화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인턴트가 밝혔다.

지난 28일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로 올라선 이 영화는 이날 오후 8시까지 56만8597명을 모아 누적 관객 수가 100만188명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역대 최단 100만 관객 돌파 기록이다.

1029만명이 넘게 관람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013)보다 하루 빠르며 전작인 ‘쿵푸팬터2’(2011)와 같은 속도다. 또 역대 1월 개봉한 흥행작의 100만명 돌파 시점과 비교해도 1281만여명의 관객을 모은 ‘7번방의 선물’보다 하루 빠르고, 865만명을 넘긴 ‘수상한 그녀’보다 이틀 빠르다.

‘쿵푸팬터’ 시리즈는 1편(2008)이 467만명, 2편(2011)이 506만명을 모은 인기 애니메이션이다.

애니메이션 제작의 명가 드림웍스의 작품이다. 전작을 연출한 한국계 여인영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았고, 할리우드 스타 잭 블랙이 주인공 포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연합뉴스



이범수 가족 ‘슈퍼맨이 돌아왔다’ 합류

배우 이범수가 아들, 딸과 함께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합류한다.

KBS는 이범수가 5살 딸 소을, 2살 아들 다을과 함께 첫 ‘슈퍼맨이 돌아왔다’ 첫 촬영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방송은 2월 중에 시작한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작진은 “이범수를 섭외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였고, 이범수는 오랜 고심 끝에 출연을 결정했다”며 “이범수가 ‘아이들이 커가는 지금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순간들이기에 아빠와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범수 가족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송일국과 삼둥이의 바통을 잇는다. 이범수는 지난 2010년 5월 프리랜서 통역사 이윤진 씨와 결혼했다. 그는 현재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촬영 중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일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A	00 KBS 뉴스광장 50 인간극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00 모닝와이드 1~2부 30 KBC 모닝와이드
7					
8	00 아침경제 끝판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들춰주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재)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3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네트워크 특선 (원전도시 제1편) 55 인생 우리말(재)	00 월화드라마 (무림학교)(재)	00 그린 실버 고향이 좋다	10 닥터 365 1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특집 50 SBS 12 뉴스
12	40 채널A 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45 닥터 365 55 신년기획 다시 호남을 말한다 5부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우리 사는 세상(재)	00 사람과 사람들(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2		00 우수 학교 스포츠 클럽 초청 대회 (베드민턴)	00 KBS 뉴스타임 1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2.0	00 키즈 사이언스 5	15 이색직업 별나학교(재)
3	00 이연경의 직면직설	55 토크생활제2	05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MBC 뉴스 10 똑똑 키즈스쿨 5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서어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세계인 스페셜 20 추재파일 K(재)	00 TV 유치원 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쿠킹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집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30 안녕 자두야
5	50 김승현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글로벌 남편 백서 내편 남편(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30 SBS 뉴스파라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토크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내려와서)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우리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집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무림학교)	00 월화 특집기획 (화려한 유혹)	00 청사 25주년 특집기획 (육룡이 나르샤)
11	00 풍문으로 들었소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획 길	15 힐링 캠프 500 인
12	40 아내가 뽀빠지(재)	20 해외결정드라마 (닥터 포스터)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BS1	
05:00 EBSe 생활 영예	11:10 문화유산 코리아
05:30 건강한 아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05:40 요리비전	12:00 EBS 정오 뉴스
06:10 EBS 인문학 특강	12:10 EBS 스페이스 공감 1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13:05 지식채널e
(마루의 어드벤처)	13:10 프레임 인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40 줄거울 수학 EBS MATH
07:45 로보카 폴리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08:00 뽀롱뽀롱 뽀로로	14:00 초등 1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08:45 코코코 다코	14:20 초등 5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14:40 초등 3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09:40 부모-생활 보감	15:00 꼬마 철학자 후고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0 모피와 친구들	(마루의 어드벤처)(재)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재)	19:30 EBS 뉴스
16:30 코코코 다코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45 뽀롱뽀롱 뽀로로 1~3(재)	20:40 다큐 오늘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20:50 세계테마기행
17:45 로보카 폴리	(물·불의 땅을 찾아서, 손다영도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1	1부 - 열대 천국, 발리)
18:05 캐니멀	21:30 한국기행
18:2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2	(기차길 따라 겨울로 1부
18:25 두키 탐험대	- 떠날고 싶은 날 태백산)
18:4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3	21:50 EBS 다큐 프리덤
18:45 발명이 광광!	(행복한 건축 1부)
18:55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4	22:45 달라졌어요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23:35 프레임 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일(음 12월 23일 癸丑)	
子	48년생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아예 만들지 마라. 60년생 최후의 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다. 72년생 부실한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의도했던 방향으로의 전개가 순탄하리라. 84년생 흥과 복이 반반이니 의견이 대치하라. 행운의 숫자 : 29, 64	午	42년생 오매불망하며 학수고대하여 왔던 것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54년생 자제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66년생 주변인들과의 조화와 상호보조가 절실하다. 78년생 입장에 따라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5, 57
丑	49년생 생산성을 도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61년생 말단은 사소하지만 파급 효과는 엄청날 수도 있다. 73년생 절대로 반복될 수 없는 관공이니 미련을 버려라. 85년생 꺼릴 수 있으니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 것이 낫겠다. 행운의 숫자 : 65, 84	未	43년생 낙관적인 정황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자. 55년생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취약점이 보인다. 67년생 실속성의 관점에서 판단할 일이다. 79년생 오는 손님 막지 말고 가는 손님 잡지 말자이다. 행운의 숫자 : 36, 46
寅	50년생 하루가 다르게 변할 수도 있으니 예의 주시해야겠다. 62년생 불만하면 빨리 청산해야 마땅하도다. 74년생 결정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들이 필요하다. 86년생 상호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1, 72	申	44년생 추진보다는 안정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56년생 밀려오는 현상들은 지경을 좌우하지 못하리라. 68년생 집착과 부담감을 버리고 조심으로 밀어붙이면 틀림없이 성사된다. 80년생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혜롭다. 행운의 숫자 : 56, 77
卯	51년생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63년생 본질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75년생 경정하되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것이 편하다. 87년생 내버려 두면 단번에 급속히 냉각되어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6, 11	酉	45년생 조절과 통제에 미숙하다면 화를 부르리라. 57년생 소폭적이거나 발전적인 이동수가 보인다. 69년생 일관된 노력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만회할 수 있으리라. 81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 원칙적 설정이 길사로 이끈다. 행운의 숫자 : 70, 94
辰	40년생 적절한 방인을 분명히 찾게 되리라. 52년생 애택할 일이 보이니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64년생 여태까지 했던 것은 헛수고였으니 다시 해야겠다. 76년생 관리를 잘 해두자. 88년생 가변성을 염두에 두라. 행운의 숫자 : 18, 73	戌	46년생 목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법이다. 58년생 목표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관세로는 상당한 변수를 안고 있다. 70년생 접애한 이해관계로 인해 민감하게 된다. 82년생 멀리하는 것이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98, 24
巳	41년생 보편적인 것이 무난하다. 53년생 만사를 제쳐놓고 처리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 65년생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 77년생 핵심을 짚어야만 효과가 커진다. 89년생 범의 등을 타는 기세로 정정하게 되니 고지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2, 28	亥	47년생 당황하지 않는다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59년생 활동에 비례하는 이익이 따를 것이니 본격적으로 나서자. 71년생 변동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83년생 의외로 더디게 진행되는 형상이 비친다. 행운의 숫자 : 79, 0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